



## 에드 시러(Ed Sheeran)

에드 시러(Ed Sheeran)은 1991년 2월 17일 영국 웨스트 요크셔 지역에서 태어났다.

에드 시러는 15살에 첫 앨범을 자주제작해서 발표한 것으로 처음 데뷔하였다. 2008년에 런던으로 이사 온 후, 에드 시러는 '브리타니아 하이(Britania High)'라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름을 알리기도 한다. 지속적인 EP발매와 투어공연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던 그는 더욱 음악에 정진하기 위해 '아카데미 오브 컨템포러리 뮤직(Academy of Contemporary Music)'이라는 음악학교에 진학한다. 그는 유튜브에 자신의 연주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팬들을 갖게 된다. 그 중에는 영국축구선수 리오 퍼디난드와 영국의 음악거장 엘튼 존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름을 알리던 에드 시러는 '줄스 홀랜드(Jools Holland)'라는 영국 유명 TV쇼에 출연해서 그의 첫 앨범 '+(+로 발음)'의 첫 싱글인 'The A Team'을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방송 이후, 이 곡은 영국 싱글차트 3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발돋움을 시작한다. 첫 앨범인 '+'는 앨범차트 1위로 데뷔하게 된다. 나중에 이 앨범은 총 180만장이 팔린다. 이 앨범으로 에드 시러는 2012년 브릿 어워즈(Brit Awards)에서 최우수 영국 남자 솔로 아티스트상을 받게 된다. 같은 해에 그는 런던 올림픽 폐막식 무대에 올라 영광의 순간을 맞기도 한다. 얼마 후, 미국 아티스트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의 음악을 듣고 그에게 연락해 같이 음악작업을 하게 되고 'Everything Has Changed'라는 곡을 만든다. 미국에서도 그의 음악성이 통했던 것일까. 빌보드 차트에서 그의 앨범은 앨범차트 5위를 기록하며 2013년 그래미 어워즈에 올해의 노래에 노미네이트된다. 에드 시러는 이 기세를 몰아 미국에서 'The Red Tour'를 진행하고 투어는 큰 흥행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듬해 2014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수상한다.

2014년 여름에 그의 두 번째 앨범 'x(multiply로 발음)'가 발매된다. 1집을 발매한 후 2집 앨범을 내기까지 에드 시러는 3년간 총 120곡을 만들었다. 2집을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영국과 미국의 앨범차트에서 1위로 데뷔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윽고 에드 시러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 한 달간 월드 투어를 감행한다. 'Thinking Out Loud'가 큰 히트를 하면서 빌보드 차트에서 8주간 2위를 기록한다. 1위는 그 당시 메가히트를 기록하고 있던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였다. 해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에드 시러는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아티스트로 그를 선정했다. 두 번째 앨범 'x'는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에 노미네이트되고 브릿 어워즈에서 최우수 영국 솔로 아티스트상과 올해의 영국 앨범상을 수상한다. 그의 히트곡 'Thinking Out Loud'로 그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와 최우수 팝 솔로 연주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의 2집 앨범은 아델의 '25'에 이어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다.

2016년 연말 어느 날, 그는 sns에 새 앨범 발매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려놓는다. 그의 세 번째 앨범인 '÷(divide로 발음)'는 2017년 3월에 발매된다. 앨범의 수록곡인 'Shape of You'와 'Castle on the Hill' 두 곡이 첫 싱글로 발매되었고 이 두 곡은 영국 싱글차트에 동시에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게 된다. 영국 차트 역사상 한 아티스트가 동시에 싱글차트 1,2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선 'Shape of You'가 1위, 'Castle on the Hill'은 6위를 기록하며 데뷔하게 된다. 이후 에드 시러는 '÷' 앨범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

## 딘(Dean)

딘은 1992년 11월 10일 서울출생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알앤비, 힙합 음악에 관심을 보이며 혼자서 작곡을 시작했다. 16살의 나이에 키스 앵프(Keith Ape)라는 한국 힙합 아티스트와의 작업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18살에는 딘플루엔자(Deanfluenza)라는 이름으로 여러 케이팝 가수들을 위해 곡을 써주는 것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제임스 딘의 이미지와 인플루엔자 처럼 전염이 강한 음악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활동명 속에 들어있다. 미국 LA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송라이팅 회사의 CEO인 신혁에게 발탁되어 여러 한국 가수들과 팝 스타들의 곡에 참여하면서 음악적 저변을 넓혀갔다. 이렇게 딘은 가수보다는 송라이터, 프로듀서로서 먼저 그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미국에 싱글 'I'm not sorry'를 발표하며 솔로 데뷔를 했다. 이 곡에서는 그래미 수상자인 에릭 벨린저(Eric Belinger)가 참여해 다른 이들과 그의 커리어의 차별성을 두게 되었다. 에릭 벨린저는 저스틴 비버나 크리스 브라운과 같은 아티스트들과 작업한 거물이었다. 한국에서는 같은 해 지코가 피쳐링한 '풀어(Pour Up)'으로 데뷔했다. 그리고 이후 자이언티, 크러쉬, 다이내믹 듀오와의 콜라보 작업을 이어나갔다.

2016년,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한국에서의 저변을 넓혀갔다. 동시에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 주최하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SXSW)' 페스티벌에 출연하면서 여러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같은 무대에 서기도 했다. 그의 출연 이후 미국의 각종 음악잡지와 여러 아티스트들이 90년대의 스무스한 사운드를 연상시키는 음악으로 호평을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EP '1300 mood : TBL'을 발매하였고 빌보드의 저명한 칼럼리스트로부터 'Poor up', '21', 'What 2 Do'와 같은 곡들이 호평을 받으며 알앤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는다.

소녀시대 태연의 솔로 프로젝트 'Starlight'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또한 이어나갔다. 미국에서도 각종 행사와 클럽공연에서 계속해서 좋은 흥행수익을 올리며 성공적인 투어를 마친다. 필리핀 투어도 흥행리에 마치면서 동남아쪽 시장에서도 그의 명성을 증명하기에 이른다. 그 유명한 타임지에 CL, 에릭남과 더불어 미국 음악시장에 도전하는 케이팝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한다. 특히나 미국에서 먼저 데뷔하고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그의 특이한 커리어가 화제거리였다.

2017년 싱글앨범 'Limbo'를 발매했다. 재즈와 알앤비의 퓨전같은 느낌을 주는 이 앨범은 백예린이 피쳐링한 '넘어와(Come Over)'와 'The Unknown Guest' 두 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여러 음원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다. 그리고 올해 4월에 프로듀서로서 '쇼미더머니 6'에 지코와 출연하며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 딘은 파리와 런던, 베를린에서 공연하였고 티켓은 모두 3분만에 매진되었다.

